

1999

자연주의와 미니멀리즘-최병훈의 아트퍼니처 작품세계

유재길/ 미술평론가/ 홍익대학교수

“나는 그만큼 서정적이고 아방가르드와 전통, 무거움과 가벼움, 매끄러움과 거칠음 등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한 아티스트를 본 적이 없다.”

- 미셸 누리자니 ('97년 최병훈 파리 개인전 작품 평)-

'90년대 중반 이후 최병훈의 아트퍼니처는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한국 목공예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점차 그의 작품은 실용성을 겸비한 예술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작가로서는 국내 아트퍼니처의 선구자이면서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생활용품에 지나지 않았던 목가구에 새로운 미적 개념과 순수 예술성을 결합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단순한 기능과 기술에 매달리지 않고 예술성을 접목시킨 그의 작업이 근래에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최병훈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은 1997년 파리와 스위스에서 전시했던 작품과 같은 경향을 보여 준다. 즉, 타원형의 단순한 구체 형태와 자연석 받침, 또는 수평 구조의 나무 받침대 위에 타원형 구체 형태를 가진 목조형 가구들이다. 그 외 야외 공간에 놓여지는 미니멀리즘 조각과 같은 형태의 석조 작품이 있고, 그리고 타원형의 단순한 벽거울이나 사각형 의자 등이 새롭게 보여진다. 그러나 역시 주목되는 것은 마치 가름한 달걀을 반으로 갈라 평면이 테이블이 되거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는 단순한 형태의 미니멀 아트퍼니처들이다. 먼저 그의 작품을 보면 기능성보다 예술성이 주가 되면서 논의된다. 그렇다고 기능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의자나 실내외 놓여지는 긴 의자, 그리고 응접실 테이블, 화장대, CD 장 등 실용적 가치가 높다. 여기서 그는 단순한 기능에 머물지 않고 독창적 '물건'을 만들어 미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처럼 그의 '물건'은 독창적 미술품처럼 개별성을 갖추고 '작품'으로 변한다. 현대미술가들은 “실용성이 없는 3차원의 물건”들을 양산해 왔다. 그 가운데 몇몇은 일류저니즘을 극복한 창조적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발점부터 다른 최병훈의 아트퍼니처는 “실용성 있는 3차원의 물건”으로 처음부터 기능성과 함께 예술성을 담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의 작품이 관객이나 사용자를 흡수하는 또 다른 요소는 공간연출이다. 최병훈의 예술가구는 기존의 장식적 공간과 달리 새로운 환경과 변화가 많은 공간구성을 요구한다. 그의 공간은 현실적 공간에 맞추면서 동시에 자연 환경과 결합을 꾀하고 있다. 정원의 잔디나 숲 속, 그리고 고대 신라의 왕릉 앞에 놓여진 그의 타원형 긴 의자들은 “자연 속에 은유적 공간”을 연출하는 작품들이다. 이것은 순수미술에서 “은유적 공간”과 같은 의미이다. 매우 다양한 공간연출은 그의 아트퍼니처를 자연주의로 해석하게 한다.

최병훈은 자신의 작품을 <자연주의(Naturalism)>와 <미니멀리즘(Minimalism)>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주의는 동양의 도교나 선(禪)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의 작업 과정에서 작품이 놓여지는 위치와 환경 변화에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거움과 가벼움, 거칠음과 매끄러움, 단단함과 부드러움 등 상반된 두개의 은유적 의미가 동양의 자연주의를 논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은 장식성이나 물질 우선이 아닌 예술적 분위기 속에서 감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완벽한 공간구성 속에서 서정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또한 최병훈의 근작에서 자주 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이는 그의 작품이 원이나 구(球), 사각형 등 단순한 형태와 연결시켜 사용된 용어이다. 특히 그의 목조형 작품들은 타원형이나 사각형, 구체 등 일체의 덧붙임이 없이 간결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그는 복잡한 장식적 효과를 배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의 미니멀 형태는 '기능성'과 함께 '연극성'이라는 의외의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즉, 작품은 보거나 장식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기능성을 발휘하여 관객이나 감상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작품과 관객, 혹은 사용자 사이의 심리적 관계가 중요시된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제작된 최병훈의 아트퍼니처는 매우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의 작업이 장르의 개척과 영역 확장인 동시에 기존 형식을 파괴하면서 그는 아트퍼니처의 선구자이면서 무모한 모험가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뿌리 깊은 전통공예 틀 속에서 현대적 미와 예술성을 담아내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병훈의 아트 퍼니처 작품에서 동양의 풍부한 감수성과 서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미셸 누리자니의 비평처럼, 우리는 그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비롯하여 자연주의와 미니멀 형태로 제작된 결과물들을 볼 때, 물질의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 미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내일의 그의 작품세계에 또다시 커다란 기대를 하게되는